

---

---

# 고려후기 사대부 민사평의 일상과 교유

---

---

김 난 옥  
(고려대학교)

---

머리말

I. 혼인생활과 친족관념

II. 관직생활과 인맥

III. 詩文에 담긴 교유와 사회상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0643).

● 투고일: 2017. 11. 16. ● 심사일: 2017. 11. 22. ● 게재확정일: 2017. 12. 6.

## 요약

민사평은 충선왕대 ‘宰相之宗’인 여흥민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閔頤과 김방경의 손녀 김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조부인 閔宗儒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20세에 김륜의 딸과 혼인하였다. 민중유와 김륜은 심왕옹립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로서, 兩家は 명문이면서도 정치적인 성향도 유사했다. 민사평의 무남독녀 역시 김방경의 증손과 혼인함으로써, 민사평 가문은 김방경 가문과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었다. 또한 민사평은 座主인 李璘의 가문과도 혼인으로 얽혀 있었다.

민사평의 딸은 평생 친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외손 역시 외가에서 生長하였다. 술서혼 習俗으로 인해 처가나 외가와 돈독했던 상황이 민사평 가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후 민사평이 처가의 매장지에 묻힌 사실도 고려후기 族墳이 부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고려후기 非父系的인 특징은 민사평의 모계친이나 처족에 대한 지칭어가 父系와 구분되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민사평은 충숙왕 2년에 급제한 후 학문에 전념하다가 元都에 억류되었던 충숙왕이 고려로 귀환한 이후 藝文·春秋修撰·左正言 등에 제수되면서 본격적인 관료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충숙왕과 충혜왕의 重祚시기에도 민사평은 승진을 거듭하였으며, 특히 諫官職과 政曹 등의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충정왕대에는 국왕의 師傅로서 원나라에 시종한 공로로 協贊功臣에 책봉되었고, 都僉議參理를 거쳐 贊成事에 올랐다. 다만 공민왕 즉위 후에는 官界를 떠났는데, 충정왕의 측근세력을 배척하는 과정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사평의 詩文에는 고려후기 사대부의 일상도 드러난다. 同年과 座主의 교류, 妻系親과의 친밀한 관계, 원나라 세력가와의 교류 뿐만 아니라 지방의 풍토와 도탄에 빠진 민생에 대한 인식도 엿 볼 수 있다.

## 고려후기 사대부 민사평의 일상과 교유

민사평은 급제 이후와 공민왕대를 제외하고는 충숙왕대부터 충정왕대까지 별다른 정치적 좌절을 맛보지 않고 승승장구하였다. 그가 교유나 관직생활에서 존중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일차적인 배경은 학식과 능력이었지만, 명문가문의 일원이라는 출신과 그와 맞물린 인적관계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민사평, 사대부, 일상생활, 인적관계, 친족관념, 가문의식, 詩文, 교유

## 머리말

고려후기의 사회상은 다양한 주제와 시각을 통해 규명될 수 있지만, 개인의 일생 자취를 따라 삶을 들여다보는 접근방식도 의미가 있다. 고려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진한 편인데, 일차적인 원인은 자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금석문이나 문집 등의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역사 기록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고려사회의 일상생활을 미시적으로 탐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公的 記事보다 私的 기록물이 오히려 개인의 일상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사평의 일상이 주목된다. 민사평은 충선왕대 ‘宰相之宗’인 여흥민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주요 활동시기는 국내외적으로 변화무쌍했던 충숙왕대부터 공민왕대 초반까지였다. 비록 『고려사』 등의 史書에 민사평과 관련된 기사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의 시문집인 『及菴詩集』이 남아 있다. 『금암시집』에는<sup>1)</sup> 관직생활과 같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간 교류 상황을 보여주는 시문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민중유·민적·민사평 3대 뿐만 아니라 민사평의 처와 처부모 및 딸의 墓誌銘이 남아있는데, 이처럼 동일한 친족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묘지명이 여러 개 현전하는 것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다수의 묘지명을 교차, 비교하면 관찬 史書에서 찾기 어려운 친족관계와 인맥을 재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계·모계 및 처계를 포함하는 민사평의 친족관계를 통해 고려시대 친족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

1) 『及菴詩集』序(白文寶)에 의하면 민사평이 벼슬할 때 지은 詩歌 수천 首를 난리 중에 잃어버리고 다만 만년에 지은 시가 주로 남았다고 하는데, 현재 300수 정도의 시와 약간의 詞·疏·道場文·醮禮文·祝文 등이 전해진다. 대다수의 작품이 시라는 제약이 있지만, 문집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고려시대 원전자료의 한정성을 극복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민사평의 인생 역정을 뒤따라가면서 고려후기 명문가문 출신 관료의 일상을 복원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문집과 묘지명 등을 통해 正史에 잘 드러나지 않은 교유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사적 관계가 공적인 영역인 官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문벌 가문 출신인 민사평이라는 개인이 살아간 삶의 궤적을 통해 일반적인 고려후기인의 일상을 그리기는 어렵다. 다만 민사평의 私的 교유관계와 관료생활의 통합적인 고찰을 통해 고려후기 사대부의<sup>2)</sup> 일상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 I. 혼인생활과 친족관념

민사평(1295~1359)은 충렬왕 21년에 閔頤과 안동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조부인 閔宗儒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민사평의 어머니는 金忻의 딸로 김방경의 손녀였는데, 아들이 겨우 다섯 살일 때 세상을 뒀다.<sup>3)</sup> 그 후 민적은 元瓘의 딸과 재혼하여 3남 3녀를 낳았으며, 아들은 閔愉·閔抃·閔渙이다.<sup>4)</sup> 고려는 결혼한 후 일정 기간 처가에서 생활하는 서류부가혼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민적이 새로운 처

---

2) 이 글에서의 사대부는 특정 시기의 권문 혹은 권문세족과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양반관료’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고려후기 문벌가문과 고위 관료를 어떠한 용어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였다.

3)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4)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頤墓誌銘. 민종유묘지명에는 민적의 아들로 平(思平) 이외에 曲出篤·金剛·忙哥篤이 나오는데, 후자 3인은 『고려사』 권108 閔宗儒 附 閔頤傳 및 閔頤墓誌銘에 나오는 愉·抃·渙과 동일인물로 파악된다. 참고로 민적묘지명에는 민사평의 이름이 子夷로 기재되어 있다.

가에 들어가면서 민사평은 조부의 집에 남게 된 듯하다. 일찍이 민적도 아버지가 아닌 이모부 金顔이 키웠는데, 외조부 유천우가 민적이 장차 귀하게 되리라는 말에 김군이 간청했기 때문이었다.<sup>5)</sup> 훗날 민사평의 외손인 金九容 역시 외가에서 나고 자랐다.<sup>6)</sup> 고려사회에서 아버지가 생존하였어도 아이를 기르는 주체가 반드시 아버지나 부계친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민사평은 충숙왕 원년(1314)에 김륵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민사평과 김씨(1302~1374)는 각각 20세와 13세였다.<sup>7)</sup> 김륵 역시 ‘재상지중’의 하나인 언양김씨 출신이었는데, 평소 사람을 잘 알아보는 식견이 있었는데 마침 민사평이 눈에 띄어 사위로 맞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명문 가문끼리의 혼인을 선호하는 사회적 풍조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두 가문은 모두 재상지중에 속하는 명문이면서도 정치적 성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비록 민사평이 혼인한 이후의 일이지만 瀋王 옹립사건에서 두 가문을 대표하는 민종유와 김륵은 동일한 대응을 하였다. 충숙왕 9년(1322) 8월에 권한공 등이 충숙왕을 폐위시키고 瀋王 髡를 추대하고자 하였을 때, 민종유와 김륵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심왕옹립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였다.<sup>8)</sup> 이로 미루어 보아 양가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다.

민사평 부부는 딸 하나만을 낳았는데, 혼인한 지 무려 10년만이었

5) 『拙藁千百』 권2, 故密直宰相閔公行狀·『高麗史』 권108 閔宗儒 附 閔頤傳

6) 『及菴詩集』 跋(李穡)·『惕若齋學吟集』 惕若齋學吟後先君惕若齋世係行事要略

7)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이 묘지명에 의하면 민사평은 충렬왕 21년(1295)에 출생해 공민왕 8년(1359)에 향년 65세로 졸하였다. 민사평처김씨묘지명에는 生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민왕 23년(1374)에 향년 73세로 졸하였다 하므로, 태어난 해는 1302년이다. 또한 김씨가 13세에 혼인하였으므로 민사평이 20세인 충숙왕 원년(1314)에 해당한다.

8) 『高麗史節要』 권24, 충숙왕 9년 8월. 민종유와 김륵이 심왕옹립책동에 반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묘지명에 자세하게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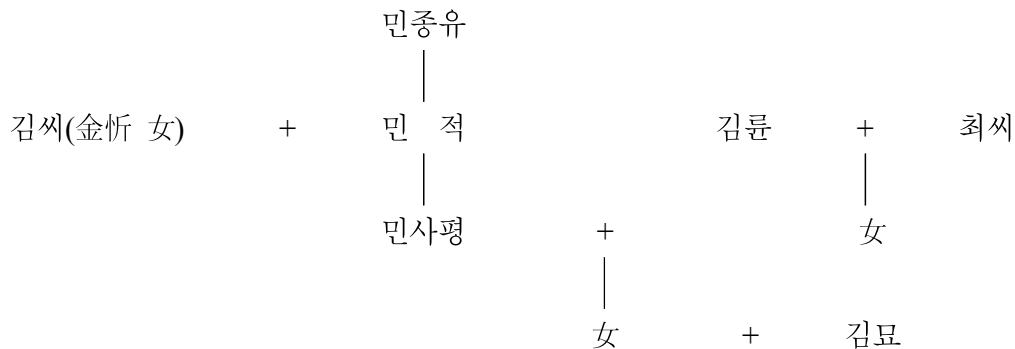
다,9) 민사평의 딸은 金昴와 혼인하였는데,10) 김묘는 金承澤의 아들이자 김방경의 증손이었다.11) 민적은 김방경의 손녀와, 그 손녀는 김방경의 증손과 혼인함으로써 중첩되는 혼인관계가 형성되었다. 묘지명에 의하면 민사평의 딸은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성대한 内外族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배웠고 母則을 본받아 효성을 다하여 친족의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모시고 피난을 갔고, 돌아온 이후에도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까지 10여년을 봉양하였다.12) 김묘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민사평이 사위와 몇 년이나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딸은 평생 친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김승택은 조적의 난이 진압된 후 이등공신에 책봉되었고,13) 공민왕대에 中書平章事로 致仕한 인물이었는데,14) 김묘가 獨子였음에도15) 불구하고 김승택의 며느리 민씨는 계속 친정살이를 하였다.

그런데 민사평의 동년인 金昴와16) 사위인 김묘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17) 민사평이 만년에 지은 시에서 김승택의 나이가 구십에 이르렀다

- 
- 9) 金昴妻閔氏墓誌銘에 의하면 민사평의 딸은 우왕 5년(1379)에 56세로 졸하였으므로, 출생한 해는 충숙왕 11년(1324)이다.
- 10)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閔思平妻金氏墓誌銘
- 11) 『高麗史』 권104, 열전 김방경
- 12)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金昴妻墓閔氏墓誌銘 “内外赫然 一國所慕 而夫人生於其間 習熟見聞 凡所當爲 壹是皆以母則爲本 事父母甚孝 朝昏定省 不以疾病廢 宗族稱之 辛丑冬 避賊南遷 奉母以行 母安焉如在室中 其後居驪興十有餘年”
- 13) 『고려사』 권36, 세가 충혜왕후 3년 6월 庚子
- 14) 『고려사』 권39, 세가 공민왕 7년 7월
- 15) 『고려사』 권104, 열전 김방경
- 16) 朴龍雲, 1990,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일지사, 459쪽
- 17) 공민왕 8년(1359)에 사망한 민사평묘지명에는 김묘의 관직이 弘福都監判官으로, 공민왕 23년에 사망한 민사평처김씨묘지명에는 判軍器寺事로 기재되어 있다. 『登科錄前篇』 「高麗列朝榜」에 의하면 민사평은 병과 2인으로, 김묘는 을과 2인으로 급제하였다. 여기 등과자인 김묘를 김승택의 아들로 파악한다면(朴龍雲, 1990,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일지사, 459쪽) 민사평은 同年을 사위로 맞이한 셈이 된다.

고<sup>18)</sup> 한 것을 보면, 김묘의 나이는 민사평과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묘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아들인 김구용의 世系를 설명하면서 金昴는 重大匡上洛君이었다는 간단한 사실만이 기재되었다. 반면에 김구용의 조·증조·고조와 외조의 관력은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다.<sup>19)</sup> 김구용의 어머니 즉 민사평의 딸 묘지명에도 배우자인 金昴에 대한 부분은 김구용이 아버지를 회상하는 짧은 문구 뿐이다.<sup>20)</sup> 따라서 김묘는 세상을 일찍 떴거나 아니면 그다지 현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표 1】 민사평의 가계도



민사평은 妻父 김륜과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 김륜은 이제현·정자후와 더불어 鐵洞三菴으로 불리워졌는데, 김륜이 사망한 후 사위인 민사평이 그 집을 물려받아 살면서 三菴의 이름을 이어받았다.<sup>21)</sup> 민사평은 아버지가 業을 시작하여 자식이 계승하는 이른바 肯構肯堂을 자신이 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sup>22)</sup>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는 남성을 통한 계보관계로

18) 『금암시집』 권2, 律詩 耆老席上呈大菴金相國  
 19) 『楊若齋學吟集』 楊若齋學吟後先君楊若齋世係行事要略  
 20)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金昴妻閔氏墓誌銘  
 21) 『牧隱文藁』 권13 書後 題楊若齋學吟後. 김륜은 7남 2녀를 두었는데(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金倫墓誌銘) 장녀가 민사평의 처이다.  
 22) 『금암시집』 권4, 詩 次愚谷詩韻 “每憶米翁五內霜 諸郎榮顯幾焚黃 自憐半子來居此 唯恐驚頑墜肯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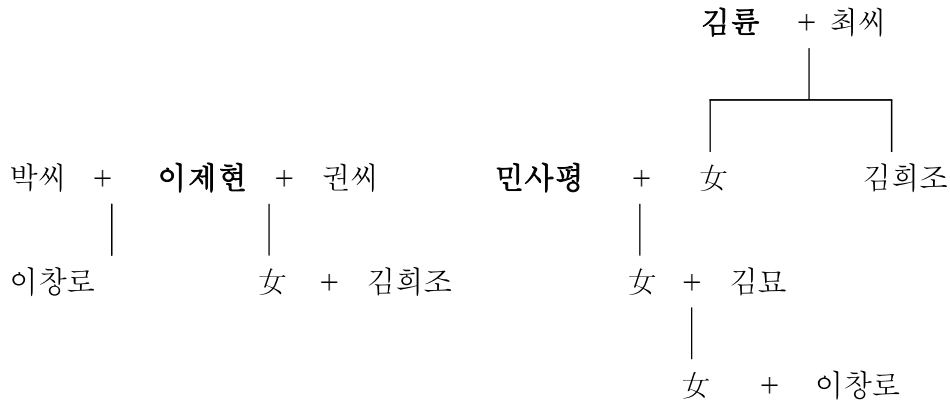
만 친속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변과 모변이 거의 대등한 친속범위를 갖는 양측적 친속이라는<sup>23)</sup>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처부의 業을 자신이 이어받았다고 인식한 민사평의 사고방식 역시 父業이 子로 이어진다고 인식하는 부계승계적인 관념과는 구별된다.<sup>24)</sup>

이제현·김륜·민사평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 뿐만 아니라 혼인으로 도 이어져 있었다. 김희조는 김륜의 아들이고 민사평에게는 처남이고 이제현에게는 사위가 된다.<sup>25)</sup> 그리고 金昴의 딸은 이제현의 아들인 彰路의 繼室이었다.<sup>26)</sup>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사평의 좌주인 이진은 이제현의 아버지였다.

한편 민사평은 외손자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였다. 김구용(김제민)이 공민왕 4년(1355)에 사마시에 급제하자 고시를 주관한 柳學士를<sup>27)</sup> 찬미하는 시를 지어 바쳤다. 이 시에서 유학사를 玉筍같은 인재를 정밀하고 높은 안목으로 선발했다고 치켜세우면서 자신의 손자가 이들 영재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자랑하였다.<sup>28)</sup> 또 다른 시에서는 김제민·김제안

- 23) 이에 대해서는 노명호, 1995, 「가족제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108~134쪽 참조.
- 24) 이러한 점에서 權溥의 一家(『고려사』 권107, 열전 權昞 附 權溥 “子準阜煦謙壻齊賢宗室璫珣皆封君 子宗頂祝髮 亦封廣福君 世號一家九封君”)가 아들 뿐 아니라 사위 등이 포함된 혈족집단이며 내외손, 사위 등을 포함한 일가, 일문이 조선후기 부계 중심적인 가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하일식 편, 2007, 「가와 家意識」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혜안, 442쪽) 역시 충분히 납득이 된다.
- 25)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李齊賢墓誌銘 및 金倫墓誌銘.
- 26)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李齊賢墓誌銘
- 27) 柳淑墓誌銘에 의하면 그는 乙未 즉 공민왕 5년 正月에 성균시를 주관하였다(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柳淑墓誌銘 “乙未正月 掌成均試 取全翊等九十九人 拜奉翊大夫判典校寺事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 성균시와 사마시는 모두 국가감시의 이칭이므로(朴龍雲, 1990, 『高麗時代 蔭絃制와 科擧制 研究』, 일지사, 150쪽), 考試의 시기와 명칭으로 보아 柳學士는 柳淑으로 추정된다.
- 28) 『금암시집』 권2, 律詩 至正乙未春正月內相思菴柳學士掌司馬試精選英材得人之盛古所未聞不勝歎美謹成四韻詩一首奉呈左右聊伸賀臆云 “春風玉筍爛盈門 考閱精強更莫言 行道揚名供子職 進賢助化報君恩 眼看多士皆英拔 心喜愚孫不數犇 明日禮

【표 2】 이제현·김륵·민사평 가문의 혼인관계도



형제의 급제를 가문의 경사라며 기쁨을 표현하였다.<sup>29)</sup> 정몽주에게 준 글에서는 자신의 손자와 교유하기 때문에 자식처럼 여긴다고 술회하였다.<sup>30)</sup> 세간에서는 김구용의 능력이 외조부로 인해 발휘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민사평은 詞學과 唐律에 능통한데다 이제현과 정자후와 서로 시를 주고받았는데, 김구용이 외조부를 조석으로 곁에서 모셨기 때문에 開發되고 自得된 바가 많았다는 것이다.<sup>31)</sup> 외손이 외조부의 시문을 보존하여 『금암시집』을 간행한 것은 손자에 대한 민사평의 애뜻한 사랑의 결실로 이해된다.

민사평 가문의 상례에서도 非父系的인 모습이 나타난다. 민사평이 사

闡新榜後 定應賀客倍騰喧” 『고려사』에 의하면 김구용은 16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散員에 제수되었다가 登第하여 德寧府注簿가 되었는데(『고려사』 권104, 열전 金方慶 附 金九容), 김구용의 예부시 급제 시기를 공민왕 4년 2월로 보는 견해도 있다(朴龍雲, 1990,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일지사, 479쪽).

29) 『금암시집』 권2, 律詩 奉和愚谷賀齊閔齊顏連舉進士. 이 시는 정자후가 제민과 제안 두 형제의 연달은 급제를 축하하는 시에 화답한 것이었다. 즉, 정자후는 민사평 외손의 급제를 축하하였고, 민사평은 다시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30) 『금암시집』 권1, 古詩 示鄭夢周

31) 『三峯集』 권3, 序 若齋遺稿序 “敬之外祖及菴閔公思平善詞學尤長於唐律 與益齋愚谷諸公相唱和 敬之朝夕侍側 目濡耳染 觀感開發而自得尤多”

망하자 외손인 김제민 형제가 상례를 주관하여 대덕산 감응사 남쪽에 묻었다.<sup>32)</sup> 이곳에는 민사평의 처부모뿐만 아니라 妻父의 부모까지 매장되어 있었다.<sup>33)</sup> 결국 민사평은 처가의 매장지역에 함께 묻혔으므로, 김륜가문의 ‘족분’은 아들·사위를 포괄하는 형태였다.<sup>34)</sup> 민사평의 처 김씨는 흥건적의 난을 피해 피난 갔다 여주에 머물다<sup>35)</sup> 그 곳에서 사망하여 鉢山에 묻혔다.<sup>36)</sup> 김씨가 개경으로 돌아왔다면 그녀 역시 남편과 더불어 친정의 매장지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평의 친인척에 대한 지칭어에도 非父系的인 면모가 드러난다. 민사평은 채하중을 大叔으로 자신은 甥으로 표현하였다.<sup>37)</sup> 채하중이 여러 재상들을 자택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자 민사평도 친숙으로서 참여하였을 때였다. 채하중은 김방경의 외손이고 민사평의 어머니는 김방경의 손녀였다. 민사평은 김방경의 손자인 국현공 김영후 역시 大叔으로 지칭하였다.<sup>38)</sup> 大叔이라는 지칭어를 모계에도 사용하였던 것이다.

32)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33)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金倫墓誌銘·金倫妻崔氏墓誌銘.

34) 김용선은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족분’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고 하였으며, 김변과 그 아들 김륜 및 김륜의 처 최씨가 대덕산에 매장된 사실을 사례의 하나로 제시하였다(김용선, 2004, 『고려금석문연구』, 일조각, 195쪽).

35)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妻閔氏墓誌銘. 해당 묘지명에 의하면 김씨는 외손인 金齊顏이 신돈을 제거하려다 처형당한 일을 한탄하면서 서울로 돌아갈 면목이 없으면서 여주에 그대로 머물렀다.

36) 한편 민사평의 딸은 김구용의 祖母 金氏의 무덤 곁에 묻혔는데(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金昴妻閔氏墓誌銘), 조모 김씨는 김구용의 외조모이자 민씨의 어머니로 판단된다. 민씨의 어머니는 김륜의 딸인데, 만년에 여흥에 살면서 서울로 돌아오라는 子壻의 요청을 물리쳤다. 그 이유는 어머니를 그곳에 장례지냈으므로 자신이 가버리면 성묘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祖母는 김구용의 조모인 金暉의 女일수도 있으나, 외조모 김씨일 가능성이 더 높다.

37) 『금암시집』 권2, 律詩 至正紀元癸巳如月初三日大叔政丞平康府院君邀侍衛同番淳化大君而下諸老相國張宴于甲第酒酣命諸親屬把盞思平隨例周旋連飲巨觥令嚴量淺醉不知作何狂態退數日慙悚者久之謹成長句四韻拜呈座下伏希咲覽

38) 『금암시집』 권2, 律詩 大叔菊軒公新構野莊與吾壽春莊隔江相望六月廿一日予適來

친족간 호칭에도 특별한 점이 눈에 띈다. 민사평은 金揮南을 弟로 지칭하였는데,<sup>39)</sup> 김휘남은 김륜의 사위이므로<sup>40)</sup> 서로 동서지간이었다. 민사평은 愚谷과 檜山君 父子가 모두 현명하여 漢나라의 太子太傅와 太子少傅인 疏廣·疏受와 같다고 칭송하였다.<sup>41)</sup> 소광과 소수는 叔姪 사이였지만, 우곡 정자후와 생질인 회산군 황석기를 父子로 표현했다. 여기에서의 父子는 叔姪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민사평은 同姓親이 아닌 異姓親에도 이와 같은 지칭어를 사용했다. 이는 고려시기 자료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족’이 특정 성씨로 구성된 집단이나 혈연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견해를<sup>42)</sup> 방증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역시 민사평 가문의 친족 내 호칭도 고려사회가 부계 중심적인 친족의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II. 관직생활과 인맥

민사평은 급제 이전에 이미 奉先庫判官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며, 곧 이어 산원과 별장을 역임하였다. 하지만 그는 무반의 직책을 좋아하지 않아 글 읽기에 매진하여 충숙왕 2년(1315)에 급제하였는데, 지공거가 李瑱이었다. 과거에 급제한 후에는 학문에 힘쓰면서 10년을 보냈다.<sup>43)</sup> 민사평

---

吾莊聞公亦到新莊欲謁而風作浪湧不可禁當不勝鬱鬱因成絕句二首拜呈左右金永煦  
39) 『금암시집』 권4, 詩 至正丁亥十二月廿九日門生謹子携酒見訪實不知僕之生日也不敢獨飲續有弟金常侍相約而至常侍有詩次韻同賦金揮南

40)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金倫墓誌銘

41) 『금암시집』 권1, 次愚谷韻贈卓獻納光茂

42) 이종서는 고려시기의 ‘족’에는 부계를 구분하여 범주화하는 기능이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를 ‘족질’·‘족형’·‘족장’·‘족하’ 등의 용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이종서, 2003, 「고려~조선전기 친족관계-‘족(族)’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64, 264~270쪽).

이 급제 후에도 오랜 동안 학문에만 전념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렇다할 관직을 제수받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다가 충숙왕이 원나라에서 귀국하여 관료를 선발하는 과정에 서<sup>44)</sup> 藝文·春秋의 修撰이 되었고 正言과 獻納을 역임하였다.<sup>45)</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충숙왕은 國王印을 회수당하고 ‘留燕五年’한 후 同王 12년(1325)에 고려로 귀환하였다.<sup>46)</sup> 이에 대해 충숙왕이 귀국 후 사헌부 등의 언론기구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개혁세력에는 세족이나 한미한 가문을 불문하고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의 인물로 구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 중 세족출신은 민상정·윤선좌·김륜·왕후·김영후 등이었다.<sup>47)</sup> 비록 민중유는 충숙왕 11년에 졸하였지만,<sup>48)</sup> 처부 김륜이 정계의 전면에서 부상하면서 민사평 역시 이 때에 이르러 비중 있는 관직에 제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충숙왕과 충혜왕의 重祚 시기에<sup>49)</sup> 민사평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였

43)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44) 충숙왕이 왕위를 회복한 후 개혁을 추진할 때 민상정·민사평·윤선좌·김영후 등의 세족 출신과 이제현·김개물·이조년·한중유 등의 신진관료들이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鄭希仙, 1990, 「高麗 忠肅王代 政治勢力의 性格」, 『사학연구』 42, 27쪽 및 39쪽), 민사평의 경우 이를 반증할만한 활약이 드러나지 않는다.

45)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46) 『고려사』 권35, 세가 충숙왕 8년 4월 丁卯·충숙왕 11년 1월 甲寅·충숙왕 12년 5월 辛酉 참조.

47) 金光哲, 1991, 『高麗後期世族層研究』, 동아대출판부, 192~193쪽

48)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宗儒墓誌銘

49) 당시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姜順吉, 1985, 「忠肅王代의 察理辨違都監에 대하여」, 『湖南文化研究』 15; 金光哲, 1996, 「고려 충혜왕대 측근정치의 운영과 그 성격」, 『국사관논총』 71; 金塘澤, 1998, 「충혜왕과 元의 갈등」, 『元干涉下의 高麗政治史』, 일조각; 鄭希仙, 1990, 「高麗 忠肅王代 政治勢力의 性格」, 『史學研究』 42; 李益柱, 2000, 「14세기 전반 高麗·元關係와 政治勢力 동향—忠肅王代의 藩王擁立運動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9; 閔賢九, 2004, 「元 干涉期 高麗의 정치양태—國王不在中의 국정운영을 통해 본 王朝體制의 지속성—」, 『高麗政治史論』, 고려대학교 출판부 등 참조.

다. 충혜왕이 즉위하자 軍簿正郎으로 王府에 출입하며 인사에 관여하였고, 충숙왕이 복위하여 대대적인 黜陟을 단행할 때에도 衛尉少尹·知製敎에 제수되었다. 충혜왕이 복위한 후에는 判典校로서 성균시를 관장하였다.<sup>50)</sup> 한편 김륜은 심왕 옹립에 반대하여 충숙왕의 편에 섰을 뿐만 아니라 충혜왕에게도 절의를 지켰다. 曹頤의 난이 평정된 뒤에 충혜왕이 황제에게 불려가면서 김륜에게 함께 가기를 청하자, 김륜은 육순이 넘은 나이에 불구하고 왕을 따라갔다. 원나라 감옥에 갇힌 와중에서도 간단하면서도 바른 이치의 언사로 응대하자, 오히려 심문하는 자들이 낮빛을 고치고 바라볼 정도였다.<sup>51)</sup> 난이 평정된 후 김륜은 공로를 인정받아 일등공신에 책봉되었다.<sup>52)</sup> 충숙·충혜왕대 김륜의 정치행적 역시 민사평의 벼슬살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민사평의 아버지 민적과 그의 형제들 역시 고위 관직에 올랐다. 민적은 충숙왕 14년에 여흥군에 봉해졌고, 충혜왕 원년에는 밀직사가 되었다. 민적이 알현할 때에는 충혜왕과 공주가 반드시 예를 갖추어 공경할 정도였다.<sup>53)</sup> 특히 민사평의 이복동생인 閔渙은 충혜왕대에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였다. 민환의 누이는 윤계종과 혼인하였는데 그들의 딸이 충혜왕의 후妃인 禧妃였다. 민환은 희비의 외숙으로서 총애를 받고 횡포를 자행하였다. 충혜왕에게 건의하여 四件奴婢를 징수하면서 오직 자신에게 뇌물을 준 자만 면제하여 주었으며,<sup>54)</sup> 諸道에서 職稅를 징수하자고 주장하여 민폐를 초래하기도 하였다.<sup>55)</sup> 또한 민환은 惡小輩를 지방에 파견하여 山

50)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51)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 후원년 1월·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金倫墓誌銘

52) 『고려사』 권36, 세가 충혜왕 후3년 6월 庚子

53)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頤墓誌銘

54)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 후4년 6월. 四件奴婢의 종류와 징수과정에 대해서는 김난옥, 2009, 「고려말 四件奴婢의 유형화와 노비정책」 『한국사연구』 145 참조.

55)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 후4년 2월

海稅를 내게 하거나 巫匠業 종사자에게 貢布를 징수하여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였다.<sup>56)</sup> 결국 원나라로 잡혀간<sup>57)</sup> 민환은 충목왕 즉위년에 辰州路로 유배되었다.<sup>58)</sup> 민사평 역시 희비의 외숙이었으나, 민환과는 달리 권력을 빙자한 부정과 비리에는 연루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권력의 정점에서 갖은 폐행을 자행하다 몰락한 민환과는 달리 민사평의 벼슬살이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충목왕이 즉위한 직후 민사평은 감찰대부가 되었는데, 같은 날에 처부인 김륜은 좌정승에 모계친족인 金永熙<sup>59)</sup> 찬성사에 제수되었다.<sup>60)</sup> 김영후와 민사평의 官界에서의 상호관계는 불분명하나, 처부 김륜이 亞相이라는 배경이 인사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민사평은 충목왕 원년에는 密直提學과 上護軍을 겸대하였으며, 동왕 2년에는 여흥군에 책봉되었다.<sup>61)</sup> 충정왕대에도 민사평은 순조로운 관직생활을 이어나갔다. 충정왕이 원에 갈 때 시종한 공로로 僉議叅理에 제수되고 輸誠秉義協贊 공신호를 받았으며, 贊成事商議會議都監事로 승진하였다.<sup>62)</sup> 그리고 민사평은 충정왕의 사부로서 왕이 베푼 연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sup>63)</sup> 민사평이 왕의 사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겠지만 충혜왕과 충목왕대 민사평 가문의 위상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충정왕대 민사평의 정계활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방제조에

- 
- 56)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 후4년 9월  
 57) 『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즉위년 5월  
 58) 『고려사』 권37, 세가 충목왕 즉위년 5월 丁巳  
 59) 민사평의 어머니 김씨는 金忻의 女이고, 김영후는 金恂의 子로서 둘 다 김방경의 孫이다(閔思平墓誌銘·金恂墓誌銘).  
 60) 『고려사』 권37, 충목왕 즉위년 10월 甲子  
 61)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62)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63) 『고려사』 권37, 충정왕 2년 1월 庚辰

제수된 일이다.<sup>64)</sup> 당시 李君佺(李岫)·洪峻·孫守卿·尹時遇·李培中도 정방제조가 되었다. 이 중 민사평·이군해·손수경·윤시우는 모두 王毗[충정왕]가 원나라에 갔을 때 시종한 신료였다.<sup>65)</sup> 민사평은 희비의 외삼촌이고 윤시우는 희비의 내종사촌인데 이들은 王毗의 외척세력으로 충정왕을 추대한 세력이었다.<sup>66)</sup> 따라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민사평은 충정왕대에도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사평의 탄탄대로는 충정왕대까지였다. 충정왕대에 찬성사가 된 후 벼슬에서 물러나 몇 년을 한거하다가 공민왕 8년에 병사했으므로,<sup>67)</sup> 공민왕의 즉위 즈음에 벼슬살이를 그만둔 것이다.<sup>68)</sup> 공민왕 즉위년은 민사평이 57세였으므로 아직 致仕할 나이는 아니었다.

민사평이 정계를 떠난 단서는 충정왕에 대한 사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69)</sup> 사론에서는 강릉대군[공민왕]이 즉위한 것은 민심과 上國의 지원 때문인데, 諸尹이 이를 반성하지 못하고 봉당을 지어 아부하면서 멋대로 하여 화근을 만들어 결국 충정왕의 불행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였다. 공민왕 즉위 후 첫 인사이동에서 이제현은 都僉議政丞에 제수되었으나<sup>70)</sup> 민

64) 『고려사』 권37, 충정왕 원년 7월 丁卯 및 10월 丁酉. 민사평은 충혜왕 재위시에 인사를 담당하였는데(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庚午 永陵卽位 頗不喜儒 苟非有得於中者 惟虎是效爲之媚悅 公時以軍簿正郎藝文應教 亦出入王府 與議選授 其操守不小變”), 이미 충혜왕대에도 정방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金昌鉉, 1998, 『高麗後期 政房 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18~126쪽).

65) 『고려사』 권37, 충정왕 원년 춘2월 甲戌

66) 閔賢九, 1981, 「高麗 恭愍王의 卽位背景」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796~797쪽

67)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閔思平墓誌銘

68) 집으로 돌아온 뒤 몇 년 동안 한가하다고 읊었는데(『금암시집』 권3, 詩 有贈 “就第年來日日閑 尙驚宦海足波瀾”) 공민왕이 즉위한 뒤 면직되어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69) 『고려사』 권37, 세가 충정왕 3년 10월 “史臣贊曰 忠穆忠定皆以幼冲卽位 德寧禧妃以母之尊 用事於內 奸臣外戚用事於外 二君雖有穎悟之資 何能爲哉 且當忠定之時 江陵君親爲叔父 得國人之心 又有上國之援 諸尹不此之顧 朋比逞欲 釀成禍胎 卒使王不幸遇鳩 悲夫”



사평은 명단에서 찾을 수 없다. 인사개편 직후 이제현은 裴侗을 행정옥에 가두고 윤시우 등을 유배보냈다.<sup>71)</sup> 배전은 덕녕공주, 윤시우는 충정왕의 측근으로 권력을 농단했기 때문이었다.<sup>72)</sup> 공민왕 원년의 인사이동에서 이제현은 우정승에, 민사평의 사돈인 김승택은 찬성사에 제수되었다.<sup>73)</sup> 하지만 여전히 민사평이 관직을 받은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충정왕 2년 5월에 叅理 최유와 다툰 사건이 민사평이 현임 관료로서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다. 당시 裴侗이 최유가 六宰가 된 것은 자신의 천거 때문이라며 유세하자, 발끈한 최유가 배전에게 주먹질을 하였다. 최유는 왕을 옹립한 공로는 자신이 제일 큰 데 윤시우는 무슨 공이 있다고 三宰가 되었나면서 충정왕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민사평은 抄奴의 후예로 六宰가 된 것만 하여도 과분하다며 최유를 꾸짖었고, 화가 난 최유가 민사평을 구타하였다. 결국 감찰사에서 민사평과 최유가 서로 싸운 것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sup>74)</sup> 다음 달인 6월에 최유가 국왕에게 불손한 언사를 하여 순군옥에 갇힐 지경에 놓인 동생 최원 등과 함께 원나라로 도망가면서<sup>75)</sup> 민사평이 연루된 탄핵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70)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 즉위년 11월 乙亥

71)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 즉위년 11월

72) 『고려사』 권124, 열전 裴幸2 裴侗 “忠定時 爲行省理問 元以侗及郎中金永煦員外郎 李元弼等 受賂放倭賊 囚鞫之 會赦免 侗猶在公主宮中 用事如舊時 都僉議尹時遇在 王側弄權 人目之曰尹王 干謁者不因時遇 則必托侗”

73) 『고려사』 권38, 세가 공민왕 10월 丙午

74) 『고려사절요』 권26, 충정왕 2년 5월 “崔濡趙瑜爲叅理…裴侗謂崔濡曰 爾爲六宰 我所薦也 濡勃然曰 吾顧因爾力乎 遂拳辱之 又言於王曰 援立之功 無出臣右 然由知都 僉議纔陞叅理 尹時遇有何功 以密直副使拜三宰 其父莘係叔父安淑亦皆嘗爲三宰 豈彼傳家之職乎 閔思平叱曰 汝乃抄奴之後 六宰於汝極矣 何不知足 濡怒歐思平 王怒 濡而不能斥…監察司劾濡思平相鬪 遣所由執濡家婢以來 濡使奴歐所由奪婢而去 僉 議司亦劾之 濡弟版圖判書源怨王有不遜語 王下源于巡軍 命右政丞孫守卿鞫之 源不 肯就獄 守卿強致之令跪 源不服曰 政丞曾不知皇帝怯薛固不可罵辱 亦不可鞫問耶 罵辱自有邦憲 拂袂而出”

75) 『고려사절요』 권26, 충정왕 2년 6월

하지만 민사평은 충정왕의 사부로서 정방제조가 되었으므로, 배전이나 윤시우와 더불어 충정왕의 측근세력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따라서 前王의 측근 정치세력을 배제해야 하는 공민왕의 입장에서는 함께 정사를 도모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 속에서 민사평의 때 이른 致仕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거하는 와중에도 공민왕 5년에는 왕명을 받아 道場에서 焚香하기도<sup>76)</sup> 하였다.

민사평의 관력에서 가장 주목되는 관직은 여러 종류의 청요직이다.<sup>77)</sup> 【표 3】에서 보듯이 민사평은 諫官職인 正言(拾遺)과 獻納(補闕), 政曹에 해당하는 軍簿正郎뿐만 아니라 예문관과 춘추관의 史館職과 成均祭酒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민사평은 충숙왕 14년부터 충혜왕 후2년까지 14년 동안이나 知製敎가 되었다. 이는 물론 민사평의 출중한 文翰 능력이 전제가 되었겠지만,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과 유력한 정계인사와의 인맥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민사평은 여몽관계가 상당히 고착화된 시기에 官界에 있었다. 고려신료는 고려국왕 뿐만 아니라 몽골 황제와 이중적인 君臣關係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민사평은 몽골에 仕宦하는 관료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았을까? 그의 글에는 고려신료의 이중적 지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이곡이 원나라에서 관직을 제수받아 떠날 때,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고향을 빛냈다고 칭찬하면서 公卿으로서 황제를 보필하라고 격려하였다.<sup>78)</sup> 김희조가 유학제거에 제수되자 ‘옥새 찍힌 황제의

76) 『금암시집』 권4, 詩 丙申小春有日雪軒翁奉命拈香康安殿法席予亦承是命采寓外院僧房各因焚點精勤雖咫尺無暇於一面但相望之際軒使朱衣吏來誇云大道場行香使因憶昔年拜呈之行吟成絕句詩一首乞紙書呈奉發一啖

77) 청요직에는 어사대의 臺官, 중서문하성의 郎舍와 諫官, 政曹의 관직, 史館職, 國子祭酒, 중추원의 承宣 등이 포함된다(박용운, 1997, 『高麗時代 官職·官階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214~224쪽 참조).

78) 『금암시집』 권3, 詩 送李中父翰林還朝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축하하였다.<sup>79)</sup> 또한 정자후의 문하에서 수업한 김자고가 반드시 원나라 조정에서 급제하여 큰 일을 도모하리라고 찬미하는 시를<sup>80)</sup> 짓기도 하였다. 민사평은 陪臣 곧 고려의 신하로서 親軍이 되어 황궁에서 황제를 시위하는 일을 매우 영광스럽게 묘사하였다.<sup>81)</sup> 해당 시에서 칭송의 대상이 된 인물은 謝傅 곧 東晉의 名臣인 謝安으로만 비유되어 실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고려와 몽골의 관직을 모두 받은 고려 신료임은 분명하다. 이처럼 민사평은 고려 몽골 관계기의 고려 신료의 이중적 지위를 당연시하였으며, 나아가 몽골 관직의 수여를 영예스러운 일로 인식하였다.

민사평은 급제한 이후와 공민왕대의 만년을 제외하고는 충숙왕대부터 충정왕대까지 줄곧 굴곡 없이 승승장구하였다. 민사평이 관료로서 남들이 선망할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학식이나 관료로서의 자질에서 우선 찾을 수 있겠지만, 명문 가문과 유력 인사와의 인맥 역시 그에 못지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표 3】 민사평의 관력\*

	王代	연도	관 직 (품 계)	진거
1	충선5	1313	奉先庫判官(乙科權務)	年譜
2	충숙1	1314	散員(正8) · 別將(正7)	年譜
3	충숙12	1325	藝文修撰 · 春秋修撰	墓誌銘
4	충숙14	1327	承奉郎 · 左正言(從6) · 知製教	年譜
5	충숙16	1329	右正言(從6)	年譜
6	충숙17	1330	通直郎 · 左獻納(正5) · 知製教	年譜
7	충혜즉위	1330	軍簿正郎(正5) · 藝文應教(正5)	墓誌銘

79) 『금암시집』 권2, 賀思亭金希祖受儒學提舉

80) 『금암시집』 권3, 詩 贈金孟堅

81) 『금암시집』 권4, 詩 又

사학연구 제128호(2017. 12)

8	충혜1	1331	右獻納(正5)·軍簿正郎(正5)·藝文應教(正5)·知製教	年譜
9	충숙후1	1332	衛尉少尹(從4)·知製教(本品行頭)·奉善大夫	墓誌銘
10	충숙후4	1335	奉善大夫·衛尉少尹·知製教	年譜
11	충숙후5	1336	版圖摠郎(正5)·慶尙道鹽鐵使·知製教(年譜)	墓誌銘
12	충숙후6	1337	典校副令(從4)·右文館直提學(正4)·知製教	年譜
13	충숙후7	1338	版圖摠郎(正5)·藝文館直提學(正4)·知製教	年譜
14	충숙후8	1339	中顯大夫·成均祭酒(從3)·知製教	年譜
15	충혜후1	1340	中正大夫·左司議大夫(從4)·進賢館直提學·知製教·全羅道按廉使	年譜
16	충혜후2	1341	正順大夫·成均大司成(正3)·藝文館提學(正4)·知製教 又拜奉翊大夫	年譜
17	충혜후3	1342	判典校寺事(正3)	墓誌銘
18	충혜후5	1344	典理判書(正3)·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又拜監察大夫)	年譜
19	충목즉위	1344	典理判書	墓誌銘
20	충목즉위, 6월	1344	書筵官	史 권37
21	충목즉위, 10월	1344	監察大夫(正3)	史 권37 · 要 권25
22	충목1	1345	密直提學(正3)·上護軍·密直副使(正3)·知密直司事(從2)	墓誌銘
23	충목1	1345	密直提學(正3)·上護軍 又拜密直副使(正3)·同知密直司事(從2)·重大匡驪興君	年譜
24	충목2	1346	驪興君	墓誌銘
25	충정1, 윤7 월	1349	輸誠秉義協贊功臣·都僉議叅理(從2)·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	史 권37 · 墓誌銘
26	충정1, 10월	1349	政房提調	史 권37
27	충정1~ 충정2		贊成事(正2)·商議會議都監事	墓誌銘
28	충정1	1349	輸誠秉義協贊功臣·匡靖大夫·都僉議參理·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 又拜重大匡·都僉議贊成事(正2)·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	年譜
29	충정2, 1월	1350	商議(재임중)	史 권37

\* 墓誌銘은 閔思平墓誌銘, 年譜는 『及菴詩集』及菴先生年譜, 史는 『高麗史』, 要是 『高麗史節要』임.

### Ⅲ. 詩文에 담긴 교유와 사회상

앞 장에서는 혼인과 관직생활을 중심으로 민사평의 인생역정을 따라가 보았다. 이 장에서는 민사평의 시문 속의 교유와 현실상황을 중심으로 고려 후기 관료의 일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자료의 부족으로 고려 시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문학 작품인 시문에 그려진 모습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또한 시문을 주고받은 대상들이 모두 긴밀한 교유관계를 맺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문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민사평의 시문에는 동년들과 교유한 흔적들이 남아 있다. 민사평은 朴仁幹(朴文忠)·朴仁宇(朴仁祐)·趙廉·金昴·安牧과 同年이었다.<sup>82)</sup> 장원 급제한 박인간은 判密直司事로 원나라에서 출할 때까지<sup>83)</sup> 관료로서의 자취가 『고려사』 등에 남아 있지만, 그와 동년이자 동생인<sup>84)</sup> 박인우는 史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평의 시에 의하면 박인우는 左尹으로서 金堤에 安置된 바 있었다.<sup>85)</sup> 민사평의 동년인 吳祭酒는 布衣 시절의 친구였는데,<sup>86)</sup> 탄핵을 받아 몇 년 동안 관직을 떠났다가 하급

82) 朴龍雲, 1990,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일지사, 458~459쪽. 민사평의 시문에 의하면 이름이 알 수 없는 吳祭酒(『금암시집』 권1, 古詩 寄呈臺長房)와 松墅先生도 동년임을 알 수 있다(『금암시집』 권2, 律詩 至正二年菊月廿四日同年松墅先生與兪長官携酒訪予酒半次文丞相詩韻各賦一首).

83) 『고려사』 권36, 세가 충혜왕 후4년 11월 壬辰

84) 金龍善編, 『高麗墓誌銘集成』 朴華墓誌銘

85) 『금암시집』 권2, 律詩 枕上吟得拙詩寄同年朴左尹仁遇

86) 『금암시집』 권3, 詩 次韻吳祭酒送劉中書

직인 어사대의 長房이 되었다.<sup>87)</sup> 또 다른 동년인 안목은 전원으로 돌아가 別業에서 안빈낙도하는<sup>88)</sup> 삶을 살았다.

좌주와 문생들도 일상적으로 교류하였다. 문생들과 함께 교외에 出遊하기도 하고<sup>89)</sup> 문생이 귀향한다고 시를 부치기도 하였다.<sup>90)</sup> 좌주의 생일을 맞이하여 문생이 술을 들고 축하하러 오기도<sup>91)</sup> 하였다. 이처럼 고려후기에도 좌주와 문생 혹은 동년간의 긴밀한 관계를 민사평의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급제자가 詣闕肅拜할 때에는 신료들이 詩賦를 짓는<sup>92)</sup> 관행도 나타난다. 당시 서로 次韻한 시가 수백여편에 이르렀는데 민사평은 19首를 지었다. 그 중 정자후에게 증정한 시가 8수, 이제현에게 올린 시가 3수로서 이들에게 헌정한 시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민사평은 이진의 문생이었는데, 이진의 아들인 이제현이 지공거로 과거를 주관할 때는 민사평의 문하에서 9명의 합격생이 배출되기도 하였다.<sup>93)</sup> 문생과 좌주의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외연이 확대된 것이다.

무엇보다 민사평의 시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교류 대상은 정자후와 이제현이었다. 『금암시집』에는 우곡 정자후와 익재 이제현의 시에 차운하거나 이들에게 증정한 글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의 교류관계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詩가 「九日愚谷席上次益齋詩韻」이

87) 『금암시집』 권1, 古詩 寄呈臺長房

88) 『금암시집』 권2, 律詩 安政堂牧村居

89) 『금암시집』 권3, 詩 與門生出游東郊

90) 『금암시집』 권3, 詩 門生劉措大歸家寄許先生

91) 『금암시집』 권4, 詩 至正丁亥十二月廿九日門生謹子携酒見訪實不知僕之生日也不敢獨飲續有弟金常侍相約而至常侍有詩次韻同賦金揮南

92) 『금암시집』 권5, 詩 牧丹詩 至正十三年夏四月新進士詣闕肅拜 上命召賦牧丹四韻 縉紳先生傳相賡和 多至數百餘篇 及菴詩十又九首云. 지정 13년은 공민왕 2년(1353)으로 민사평은 원로로서 초빙되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93) 『금암시집』 권2, 律詩 奉賀益齋知貢舉

다. 이 시에서 민사평은 팔순이 넘어도 정정한 정자후를 경애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으로, 우곡과 익재가 술자리에서 항상 자신을 초대하는 이유는 자신의 선친과 장인이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94)</sup> 즉 민적과 김륜, 정자후와 이제현의 관계가 대를 이어 민사평에게로 이어졌던 것이다. 민사평은 정자후의 은혜가 장인과 같다고 하였으며,<sup>95)</sup> 그와 인연을 맺어 준 장인 김륜에게 감사하였다.<sup>96)</sup> 또한 정자후의 甥姪을 훌륭한 인재로 표현하였는데, 그 조카가 바로 민사평과 절친한 사이였던 황석기였다. 이와 같은 인적관계 속에서 『급암시집』에 철동삼암과 관련된 詩가 많이 수록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sup>97)</sup>

민사평은 장인 뿐 아니라 다른 처계친과도 시문으로 교류하였다. 민사평은 김희조가 유학제거에 제수되자 이를 축하하는 시를 지었다.<sup>98)</sup> 이 시에서 민사평은 그를 儒林의 一代 賢者로 칭송하였는데, 김희조는 민사평의 처남이었다. 김희조가 황제의 사신과 동행하여 금강산에 降香하러 가자 송별시를<sup>99)</sup> 짓기도 하였다.

역시 처남인 김숙명에게 증정한 시도 있는데, 이 시에서 민사평은 장인의 성품이 인색하여 술을 자주 빌려오기 어렵다고 풍자하였다.<sup>100)</sup> 장

94) 『급암시집』 권1, 古詩 九日愚谷席上次益齋詩韻) 이제현은 자신이 지은 김륜묘지명에서 김륜을 詩友라고 하였다.

95) 『급암시집』 권3, 詩 賀愚谷高年 “丈人恩與大人同 所謂吾翁即乃翁 愚谷高年胡不賀 戀村遺愛未云終”

96) 『급암시집』 권3, 詩次 愚谷銀杯詩韻 “曾事先生似所天 況今屋宅卜隣遷 大公鶴髮心猶待 謝傅娥眉興未全 樂道獨堪居陋卷 渴時雅不酌貪泉 每陪杖屨聞高論 深感冰翁結社緣”

97) 정자후는 『고려사』 등의 관찬 사서에는 기록이 희소한데, 민사평의 글 속에서 그의 인생역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詩文의 적극적인 이용과 자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98) 『급암시집』 권2, 律詩 賀思亭金希祖受儒學提舉

99) 『급암시집』 권3, 至正癸巳八月送思亭金判書伴王祕卿降香金剛山“

100) 『급암시집』 권3, 詩 戲寄木州金正郎淑明. 이 시에서 민사평이 강직하고 현능한 장인 김륜을 인색한 인물로 회화화한 것은 자신이나 장인이 이웃집 노인이나 마

인에게 생신을 축하하는 시를 올리고,<sup>101)</sup> 장인의 집을 물려받게 될 정도로 사랑을 받은 사위였으므로, 민사평의 이러한 표현은 그만큼 친밀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민사평이 처남들과 시문을 통해 교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형제와 주고받은 시문은 찾을 수 없다. 물론 형제처럼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시문을 교류하는 일이 어색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민사평은 처계친족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민사평은 원나라의 유력인사와도 교유하였다. 민사평은 충목왕대에 신예에게 주는 전별시를 지었는데, 分司御史 신예가 빨리 귀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sup>102)</sup> 당시 신예에게 준 分韻聯章은 정자후의 謝宴詩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전별시 증여자 중에 이제현·김륜<sup>103)</sup>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울러 연꽃 감상을 약속할 정도로 가까웠고,<sup>104)</sup> 민사평이 輓詞에서 동갑내기의 이별을 슬퍼했던 홍탁<sup>105)</sup> 뿐만 아니라 민사평이 만취해서 찾아갈 정도로 가까웠던<sup>106)</sup> 김사도 역시 신예에게 전별시를 주었다.<sup>107)</sup> 민사평의 인적관계망이 이처럼 넓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 출신 인물과 시문으로 교유한 자취도 찾을 수 있다. 민사평은 제주로 떠나는 浙東人 季旻을 送別하는 詩에서 季旻은 忠信에 의거하므로 궁벽한 곳에 부임해 와도 누추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08)</sup> 민사평이

---

을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므로, 世族이자 名士로서의 위엄과 체통을 내세우며 세상 사람들을 경시한 흔적이 없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유호진, 2011, 「閔思平 詩에 나타난 諷刺와 諧謔」 『東洋漢文學研究』 33, 290~292쪽).

101) 『금암시집』 권3, 詩 冰翁生日次愚谷韻

102) 『금암시집』 권3, 詩 寄辛草亭曾爲南臺御史

103) 신예에게 전별시를 증여한 인물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난옥, 2015, 「고려말 詩文 교류와 인적관계—辛齋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1 참조.

104) 『금암시집』 권2, 律詩 約義軒賞蓮洪鐸

105) 『금암시집』 권4, 益城府院君挽章

106) 『금암시집』 권3, 詩 醉訪金正言值不在留一絕師道

107) 『동문선』 권21, 七言絕句 員外辛草亭之朝上國 諸公分字作詩 得紛字(洪鐸) · 『동문선』 권4, 五言古詩 送辛草亭齋赴上朝(金師道)

108) 『금암시집』 권1, 送季明叔之濟州旻 “先生仗忠信 居之亦何陋 汲直薄淮陽 長沙嫌



이제현의 小樂府에 화답한 글 중의 하나가 林掾에 대한 것인데,<sup>109)</sup> 임연은 강남인이었다.<sup>110)</sup> 이 밖에 雲南使臣에게 증정한 시도<sup>111)</sup> 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민사평의 시문에는 正史에 거의 기록되지 않거나 혹은 아예 흔적이 없는 인물도 등장한다. 민사평이 송별시를 주었던 洪敏求是<sup>112)</sup> 『고려사』에서 찾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색의 글에 의하면 홍민구가 귀향할 때 정자후가 지은 송별시에<sup>113)</sup> 이제현·민사평·이인복·윤환·홍석기 등이 次韻하였다. 홍민구는 癸巳年인 공민왕 2년에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인데, 그의 어머니가 崔冲의 10대손이라는 사실이 특기되어 있다.<sup>114)</sup> 황석기가 차운한 시에도 홍민구가 儒宗의 후예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sup>115)</sup> 홍민구의 家系에서 외가를 드러낸 점이나, 당시의 내로라하는 문장가들이 일개 진사에게 송별시를 주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한편 고려후기 지방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사찰이 史庫로 활용되었다. 해인사는 國史를 포쇄하는 장소였는데, 해인사는 三災가 이르지 않는 곳이라서 삼한의 서적들을 보관했다고 한다. 민사평이 젊은 시절 포쇄하러 갔을 때, 고을 수령들이 다투어 명함을 내놓고, 기생들을 말에 싣고 와 술상을 펼치기도 하였다. 민사평은 환락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후 騎省에 올라 청요직인 낭관이 되었

舞袖 官閑無一事 只可飲醇酎”

- 109) 『금암시집』 권3, 伏蒙宗伯益齋公錄示近所爲詩數篇其折輩行誘掖後進之意深且切矣雖以庸愚寧不知感然自惟拙澁必不能攀和因循至今惶悚間公恕其逋慢之罪再以小樂府二章示之愈感愈悚謹和成若干首薰沐繕寫拜呈左右
- 110) 『목은시고』 권5, 雪後寄林掾名傑江南人
- 111) 『금암시집』 권4, 詩 贈送雲南使臣
- 112) 『금암시집』 권3, 送洪敏求進士愚谷韻
- 113) 『東文選』 권15, 七言律詩 送洪敏求進士
- 114) 『牧隱文藁』 권13, 跋 跋愚谷諸先生送洪進士詩卷
- 115) 『동문선』 권16, 七言律詩 次鄭愚谷子厚韻送洪敏求進士

다고<sup>116)</sup>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겼다. 年譜에 의하면 32세인 충숙왕 13년에 국사를 포쇄하고 다음해에 좌정언이 되었다.<sup>117)</sup> 여기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관료를 통해 입신의 끈을 이으려는 지방관들의 행태도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풍토와 현실상황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金海는 倭國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서 예전에는 상선들이 자주 오가 남방의 진귀한 물품이 산처럼 쌓였는데, 지금은 그들이 入寇하여 村民이 방어하느라 힘든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sup>118)</sup> 제주의 공물이 곧과 유자이고 제주인들은 문신을 하고 사냥에 능하였다는 점과, 준마 만 필이 모여 있는 천자의 마구간이라고 할 정도로<sup>119)</sup> 제주도가 원나라의 목장으로 이용되었던 상황도 민사평의 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민사평의 시 속에는 민생의 피폐함도 드러난다. 장정들은 戶籍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아낙네들은 굶주려 벼를 빌려올 힘조차 없는데, 조세를 재촉하는 가혹한 아전은 빈번하게 장부를 가지고 온다고 묘사하였다.<sup>120)</sup> 민사평은 충숙왕 후5년(1336)에 慶尙道鹽鐵使로, 충혜왕 후원년(1340)에는 全羅道按廉使로<sup>121)</sup> 지방에 부임한 바 있었다. 민사평의 지방의 풍토나 민생의 실상에 대한 인식은 이 시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

116) 『급암시집』 권1, 送崔德成史官晒史海印寺. 한편 자신이 29년 전에 포쇄했다고 하였으므로, 이 시는 민사평이 61세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117) 『及菴詩集』 及菴先生年譜 “泰定三年丙寅 承命曬國史于海印寺 泰定四年丁卯 拜承奉郎左正言知製教”

118) 『급암시집』 권1, 寄金海遨頭

119) 『급암시집』 권1, 送季明叔之濟州晉

120) 『급암시집』 권1, 村中時事韻 “村中對案淚霑衣 只爲今年省見稀 男困有心逃戶籍 女飢無力借隣機 催租酷吏頻持牒 乞食窮兒每到扉 且問當時誰任責 欲言非職恨身微 無義生猶死 有心榮亦枯 忍看邦本瘁 鞭背無完膚”

121) 『급암시집』 及菴先生年譜

## 맺음말

민사평은 충선왕대 ‘宰相之宗’인 여흥민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閔頤과 김방경의 손녀 김씨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민사평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조부인 閔宗儒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며, 20세에 김륜의 딸과 혼인하였다. 민사평의 무남독녀는 김방경의 증손이자 김승택의 아들인 金昂와 혼인함으로써, 민사평 가문은 김방경 가문과 중첩되는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한 민사평의 좌주는 이제현의 아버지인 李璘이었는데, 처남 김희조는 이제현의 사위가 되었고 민사평의 외손녀는 이제현의 며느리가 되었다. 이처럼 고려후기 사대부인 민사평의 가문은 혼인과 좌주·문생관계로 또 다른 명문가와 얽혀 있었다.

민사평의 딸은 평생 친정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외손 역시 외가에서 生長하였다. 솔서혼으로 인해 처가 혹은 외가와 친밀했던 상황은 민사평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사평은 처가의 매장지에 묻혔는데, 이는 고려후기 族墳이 부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려후기의 非父系的인 특징은 민사평의 모계친이나 처족에 대한 지칭어가 父系와 구분되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민사평은 충숙왕 2년에 급제한 후 학문에 전념하다가 元都에 억류되었던 충숙왕이 고려로 귀환한 이후 藝文·春秋修撰·左正言 등에 제수되면서 본격적인 관료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충숙왕과 충혜왕의 重祚 시기에도 민사평은 별다른 문제없이 승진을 거듭하였는데, 특히 諫官職과 政曹를 아우르는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이후 충정왕의 師傅로서 원나라에 시종한 공로로 協贊功臣에 책봉되었고, 都僉議參理를 거쳐 贊成事에 올랐다. 다만 공민왕 즉위 후에는 官界를 떠났는데, 충정왕의 즉

근세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민사평의 詩文은 고려 후기 사대부의 일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同年과 座主의 교유, 妻系親과의 친밀한 관계, 원나라 세력가와의 교유 뿐만 아니라 지방의 풍토와 도탄에 빠진 민생에 대한 인식도 나타난다.

민사평은 급제 이후와 공민왕대를 제외하고는 충숙왕대부터 충정왕대까지 별다른 정치적 좌절을 맞보지 않고 승승장구하였다. 그가 교유나 관직생활에서 존중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은 그 자신의 학식과 능력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명문가문의 일원으로서 그와 연계되었던 인맥 역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사평과 같은 사례들을 수집하여 연구대상을 확대한다면, 고려 후기 사대부의 일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복원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高麗史』·『高麗史節要』·『及菴詩集』·『東文選』·『益齋集』·『稼亭集』·  
『拙藁千百』·『惕若齋學吟集』·『牧隱集』

金龍善編, 2012, 『高麗墓誌銘集成』 第五版, 한림대 출판부.

유호진 옮김, 2013, 『及菴詩集』, 한국고전번역원.

### 2. 저서 및 논문

金光哲, 1991, 『高麗後期世族層研究』, 동아대출판부.

김난옥, 2015, 「고려말 詩文 교류와 인적관계—辛齋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1.

김용선, 2004, 『고려금석문연구』, 일조각.

金昌鉉, 1998, 『高麗後期 政房 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노명호, 1995, 「가족제도」 『한국사』 15, 국사편찬위원회.

閔賢九, 1981, 「高麗 恭愍王의 卽位背景」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지식산업사.

朴龍雲, 1990,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일지사.

박용운, 1997, 『高麗時代 官職·官階 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유호진, 2011, 「閔思平 詩에 나타난 諷刺와 諧謔」 『東洋漢文學研究』 33.

이종서, 2003, 「高麗後期 이후 ‘同氣’ 理論의 전개와 血緣意識의 變動」 『동방학지』 120.

이종서, 2003, 「고려~조선전기 친족관계—‘족(族)’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64.

정혜순, 2010, 「여말선초 여흥민씨 가문의 동향」 『石堂論叢』 47.

사학연구 제128호(2017. 12)

鄭希仙, 1990, 「高麗 忠肅王代 政治勢力의 性格」 『사학연구』 42.

하일식 편, 2007, 「家와 家意識」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각』, 혜안.

Abstract

Daily Life and Personal Relationship of Min Sapyung, a Nobleman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Kim, Nan Ok

Min Sapyung was a member of Yeoheung Min family, a prestigious jaesangjijong (a family that produced generations of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and was born to Min Jeok and the granddaughter of Kim Banggyeong. He was bereaved of his mother when young, raised by the grandfather Min Jongyu, and married the daughter of Kim Ryun when he was 20. Min Jongyu and Kim Ryun both strongly opposed to enthroning of King Shimyang; they came from prestigious families that shared a similar political view.

The daughter of Min Sapyung lived with her parents throughout her life, and her daughter also grew up in the grandparents' house. Solseohon (matrilocal residence) was widespread during the Goryeo dynasty whereby families forged a strong bond with relatives on mothers' side, as is shown in the case of Min Sapyung's family as well. When he died, he was buried at a cemetery for his wife's family, and this indicates that jokbun (family graveyard) was not centered around the paternal line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e non-paternal oriented characteristics of that period are also observed in that the terms that indicated Min Sapyung's families on mother's or wife's side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that indicated his

families on father's side.

After passing a state examination in the second year of King Chungbuk's reign, Min Sapyung devoted himself to academic learning. Then he began his career as a government official when he was appointed as jwajeongeon (左正言) after King Chungbuk was released from the capital city of Yuan Dynasty and returned to Goryeo.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buk and the reign of the reinstated King Chungnyeong, Min Sapyung was promoted and appointed at important posts termed cheongyojik (清要職). He was acknowledged as a mentor to King Chungnyeong, and he took positions of docheomeuichamri (都僉議叅理) and chanseongsa (贊成事). After King Gongmin was enthroned, Min Sapyung left the government as people close to King Chungnyeong were excluded from key positions.

His poems and proses describe daily life of noblemen in late Goryeo Dynasty in detail. Exchanges with dongnyun (同年) and jwaju (座主),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wife's family are well observed. His writing also illustrates his relationship with various other peopl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regions and lives of people.

Since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Min Sapyung had a successful political career between the reign of King Chungbuk and King Chungnyeong without much frustration except for the period of King Gongmin. Primarily, he could lead a respected life in both personal realm and political career as government official due to his outstanding academic knowledge and capabilities, but his background as having come from a prestigious family and a consequent strong human network also played an important part.

Keywords : Min Sapyung, noblemen, daily life, personal relationship, notion of relatives, concept of family, poem and proses, companionship